

“남도 천년사찰로 ‘나를 찾는 여행’ 떠나요”

도 ‘세계명상관광’ 사업지 5곳 선정
용흥사·능가사·천관사·백양사·신흥사
축제·문화자산 등 연계 심·치유 제공

전남지역 5개 사찰에서 명상을 통한 심·치유 경험의 장이 마련된다.

전남도는 20일 “유구한 역사의 지역 사찰을 세계적 명상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대상지로 담양 용흥사, 고흥 능가사, 장흥 천관사, 장성 백양사, 완도 신흥사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천년사찰이 보유한 고유 문화자산과 명상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쉽고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찰 주요 프로그램은 담양 용흥사의 경우 차명상, 달피 수바래길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등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담양대나무축제 등과 연계해 5-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 능가사는 사찰 이름을 딴 ‘남도 천년사



전남도가 담양 용흥사, 고흥 능가사, 장흥 천관사, 장성 백양사, 완도 신흥사 등 5곳을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대상지로 선정, 고유한 문화자산과 명상 콘텐츠를 결합한 심·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진은 완도 신흥사 전경. <전남도 제공>

찰, 명상 여행 해봤는가’란 주제로 심인볼 사운드 테라피, 해변 행선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8-12월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 천관사는 ‘천관사 마인드 리트리트(Mind Retreat)’를 주제로 동백숲 걷기 명상 등을

천관사 산사음악회 등과 연계해 8-12월 추진한다.

장성 백양사는 참사람 가맹정진, 다도명상, 호흡명상, 사찰 음식명상 프로그램 등을 백양사에 기단풍페스티벌과 연계해 10-11월 진행한다.

완도 신흥사는 ‘천년사찰 산사에서 명상하고 청정바다 완도에서 치유하다’란 주제로 심인볼 와선, 좌선 등 사찰 정적 명상, 신지 명사십리해변·명사갯길 포항명상 등 동적 치유활동으로 구성대 해양치유센터체험, 청정완도 가을심 여행과 연계해 6-12월 진행한다. 포항이란 불교이러 길을 걸으며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개의 사찰에는 각 2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명상 공간 정비,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찰별 특색에 맞춘 명상관광 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 “전남의 천년사찰이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는 가장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남 사찰을 세계적 명상치유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예약 10건 중 2건 ‘노쇼’

지난달 예약 부도율 17.3%...시민 불편
市, 내달부터 노쇼 횡수따라 예약 제한

광주시는 20일 “오는 5월1일부터 북구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No-show) 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료도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해 이용 수요가 높다.

그러나 예약한 시민이 실제로 입실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야영장 예약 노쇼율은 17.3%(전체 1천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다. 10명 중 2명이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광주시는 불필요한 예약 점유를 줄이기 위해 예약 노쇼 횡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노쇼로 간주해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노쇼 횡수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톡을 통해 예약 내역을 안내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기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가정에 적용하던 이용료 70% 감면 혜택을 병역명문가 가정까지 확대한다.

박항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예약 부도 관리제 도입으로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서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0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道, 청년 마음치유 프로그램 시범 3개 시·군 공모

전남도는 20일 “지역 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할 3개 시·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단절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 맞춤형 전문가 상담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공모에 선정된 시·군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전남도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마음치유가 필요한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문상담사가 권역별로 직접 방문해 상담

한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위기청년 지원사업으로 전문상담사의 1대1 심층상담뿐 아니라 자기회복, 진로탐색, 자조모임 등 개인별 여건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정 청년희망과장은 “청년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맞춤형 상담과 연계를 통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 박차

전남도는 20일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도민은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 우편으로 전달되면 본인 소유 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대한민국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시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광안로관리청

전라남도 전남도청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소해보임협회